



편집후기

◇……불멸 더위의 가뭄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한해를 극복하려는 굳은 意志는 한결 人間의 뜨거운 執念을 불태우게 했다.

◇……오늘도 복지사회 건설의 역군이란 궁지속에서 苦된 시련을 보람차게 이겨내는 火協家族들, 뜨거운 拍手를 보낸다.

◇……「총화내실의 해」로 경한 78년은 서정쇄신의 확대, 부조리 척결로 더욱 밝은 내일을 기약하는 上半期였다.

始務式에서, 支部長會議, 업무 심사분석 보고회 등 바쁜 日程이었지만 날로 成長을 거듭하는 火災保險協會는 그 면모를 國內외에 과시, 국제적인 방재 시범장으로 발전한 것이다. 國內外에서 쇄도하는 방문객으로 防災展示場은 초만원에 이를정도.

◇……保險산업의 近代化로 인한 정책전환으로, 보험공사가 설립되고, 再保險이 民營化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. 이에 특집으로 保險公社의 임무와 업무개요, 재보험의 進路 등 玉稿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.

◇……表紙는 지금까지 發刊한 安全點檢誌에서 每年 한권씩 고른 것이다.

◇……잘했다고 하면 공치사가 되겠고 못했다면 변명이 될테니 단지 독자의 열화와 같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할 뿐이다. <烈>

火災安全點檢<年 2回刊>

(通卷10號)

登錄番號 바 520

登錄日字 1973年 10月 11日

發行日字 1978年 7月 1日

非賣品

發行人 李 養 浩

編輯人 金 雲 淑

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火災保險協會

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-614

汝矣島 郵遞局 私書函 27號

☎ (782) (8111~20 8121~5
8211~9 8157~9)